

공고문:

---

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의 베를린 국립 박물관 산하 아시아 미술 박물관 및 인류학 박물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아래 직위를 구합니다:

한국 소장품 연구 직원  
Pay group EG 13 TVöD  
코드 번호: SMB-EM/Aku-3-2022

근무 기간은 3년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베를린 국립 박물관은 15개 박물관과 4개 연구기관 그리고 이사회를 가진 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의 가장 큰 두 개의 기관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박물관에 속합니다.

베를린 국립 박물관 산하 아시아 미술 박물관 및 인류학 박물관은 100만 점 이상의 전시품을 소장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비유럽권 문화 전문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유형 및 무형 예술품과 문화 유물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인류학 박물관과 아시아 예술 박물관은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 박물관의 컬렉션에는 각각의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박물관은 훔볼트 포럼(Humboldt Forum)에서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곳의 전시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의 문화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진 최신 주제 간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미술 박물관과 인류학 박물관에서 한국 소장품을 담당할 한국의 미술사 및 문화사를 전공한 전문 큐레이터를 구하고 있습니다. 큐레이터의 업무는 베를린 박물관에 있는 한국 관련 컬렉션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외적으로 그 존재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지 리소스, 특히 한국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한국 출신의 예술가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시와 행사를 통해 한국 예술과 문화의 특별성과 다양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상호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참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담당 업무:

- 큐레이터 업무로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관점에서 한국 컬렉션을 맥락 안에서 규명하고 연구(문서화)
- 개별 작품에 대한 심층 연구: 박물관의 소장품에 관한 학술적 분류, 기원연구, 컬렉션 구성품의 유형성 및 역사, 출처 연구, 사회적 문화적 연관성
- 디지털 박물관 기록 시스템을 포함하여 새롭게 확보한 지식의 출판 및 문서화
- 한국 문화를 전시하는 박물관의 최근 수요를 감안하여 한국 컬렉션의 확장을 위한 구상
- 네트워크 구축: 한국에 포커스가 맞춰진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한국의 관련 협회, 기관 및 국제적 파트너와의 국내외적 협력의 구축 및 유지, 확대
- 베를린 소재 대학과 협력, 향후 '연구 캠퍼스 달렘'과 학술적 협력
- 한국에 중점을 둔 동아시아의 예술적 문화적 경향에 맞춘 상설전시, 단기전시, 특별전시 및 행사의 구상, 계획, 실행: 전시와 회의(워크숍, 세미나 등 포함)를 각각 매년 최소한 1회 개최한다.
- 소장품에 동반되는 간행물 발간, 유물 대여를 위한 작품 선정, 유물대여 문의 추진
- 베를린 국립 박물관 및 훔볼트 포럼 아카데미 교육/중개 담당과와 협력하여 전시회의

- 프레임워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전략 및 포맷 개발
- 소장품 관련 학술적 및 기타 일반적인 문의 사항에 대한 처리

**자격 요건:**

- 한국미술사를 전공한 미술사, 문화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과의 석사 학위 소지자; 지역적으로 한국에 특화된 동아시아 미술학 및 문화학 영역에 대한 깊은 지식 소유자
- 보다 넓은 전문 학술적 맥락에서 주제에 관한 독자적 연구능력과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역량
- 한국의 예술, 유형성, 역사, 고고학, 사회 그리고 문화에 관한 연구 및 출처조사에 있어서 경험 및 지식
- 관련 분야의 우수한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
- 대중적으로 효과가 있고 기관간 협력하면서 각 분야를 포괄하는 개발, 실행, 협력에 있어서 입증 가능한 매우 우수한 경험
- 예술작품 중개에 관한 전문 능력 및 박물관에서 업무 경험
- 박물관 데이터베이스 작업 경험
- 한국어와 영어의 회화 및 작문 관련 우수한 언어 지식; 독일어 지식 또는 독일어를 배우려는 의지(독일어가 공용어임)

**우대 요건:**

- 한국을 전공한 과제 관련 전문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SPK)은 모든 국적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SPK는 학술 문화 연구 기관으로서 가족 친화적인 근무 조건을 제공하며 연방 평등법에 따라 양성평등을 보장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 특별히 배려됩니다.

큐레이터는 전일 근무제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코드 번호 SMB-EM/Aku-3-2022를 적어서 이메일(가능한 pdf 문서 1개로 최대 7MB)을 통해 2022. 6.14일까지 지원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tiftung Preussischer Kulturbesitz, Personalabteilung, Sachgebiet I 1.1m, Von-der-Heydt-Str. 16-18, 10785 Berlin – E-Mail: [bewerbungsmanagement@hv.spk-berlin.de](mailto:bewerbungsmanagement@hv.spk-berlin.de).**

지원시 서류형태의 지원서는 복사한 자료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는 우표가 부착된 봉투를 동봉한 경우에만 반송됩니다.

공무원은 근무 중임을 판단할 수 있는 최신 (12개월 미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저장 및 편집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reussischer-kulturbesitz.de/karriere/datenschutz.html>.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은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Mr. Prof. Dr. Koch (전화: 030 -8301-352),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은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Mrs. Dr. Lang (전화: 030 - 266 41 1600).